

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

1. 관련 기사

- 9.15.(금) 한국일보, “외국인 노동자 두 배 오는데...지원센터 44곳 내년에 전부 폐쇄” 등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·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*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으로서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

*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

-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편의를 고려한 주말상담 제공, 지역 네트워크 유지 등 양질의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음
 - 고용허가제 행정 상담과 직장생활과 관련된 고충상담에 대하여는 외국인력 전화상담센터를 통한 주말 전화상담 서비스 확대, 사전 상담예약제 등을 통한 주말 대면상담 제공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,
 - 교류 모임 등 지역네트워크, 생활정보 상담 등은 각 지자체 외국인노동자 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음
- 한편, 외국인근로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모니터링, 근무실태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, 원활한 귀국 지원을 위한 설명회 등 단계별 체류지원 서비스도 지속 제공하는 등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현 (044-202-7149)